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7.22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76.80원 (-1.70원)

KOSPI

6,747.95 (+231.68, +3.56%)

KOSDAQ

753.34(+3.70, +0.49%)

국고채 10년 금리

4.328(-0.008%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신용 점검 [김상만]
실전 퀀트	지수 반등, 외인이 결정했다 [이경수]
해외채권	시가 쏘아올릴 재정 우려 [허성우]

기업분석

롯데웰푸드	2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전망 [심은주]
-------	-----------------------------

산업분석

유통	대형마트, 새벽배송보다 더 중요한 것 [박종대]
유틸리티	RPS 폐지와 태양광 PPA [유재선]

글로벌리서치

JCET	고성장 구간 진입한 중국 첨단 패키징 1인자 [백승혜]
CATL	BESS 통합 시스템 확대가 이끄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송예지]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같은 문제, 다른 해결책(뉴욕과 PJM)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Oil, 대한항공, 오리온, 한화생명
금호석유화학, 에스티팜

하나증권

2026년 7월 22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rediVille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현황과 신용 점검

둥쳐있으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국내 1·2호 석유화학업계 구조개편안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의 승인을 앞둔 가운데 중동 사태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사업재편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되고 있다. 대산산단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의 ‘국내 1호’구조개편안이 최근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제2호’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 4개사가 제출한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재편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주도로 ‘25년 이후 추진된 화학산업 개편작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심화 등에 따른 산업 내 구조적인 사업성 저하 문제가 개별기업 차원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해소되기 어려운 성격이라는 문제의식하에 진행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의 최근 영업실적을 보면 중동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발생으로 수익성이 반짝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그 같은 긍정 효과는 지속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 말 마무리된 신용평가사들의 상반기 정기평정 결과에서도 석유화학업종 기업들의 등급/전망 하향빈도는 비금융 기업 중 가장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그 같은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석유화학업종 및 관련 기업들의 신용도 전망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하향일변도의 추세를 지속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정부주도의 구조개편 및 체질개선을 통해 회복의 실마리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 신용평가사들의 구조개편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별기업 간 이합집산을 통한 설비감축(NCC에 집중되었지만 일부 다운스트림도 포함)으로 인해 일정 부분 가동을 제고를 통한 사업성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설비 증설 부담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신규 저원이 설비 진입이라는 이중 부담이 상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번 구조개편은 손실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의미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원가구조 자체를 바꾸거나 구조적 경쟁열위를 해소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구조개편의 실효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이다. 구조개편과정에서의 사업조정 및 공동기업 설립(또는 사업양수도를 통한 지분구조조정)을 통해 참여기업들은 회계상으로는 기존 주주사의 연결 범위에서 손실과 차입금 일부를 제외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시장성 차입금을 포함한) 궁극적인 재무부담은 주주사에 귀속되었지만 구조개편 지원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부채구조개편 효과는 사업적인 측면의 제한적인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을 정도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영업실적 전망 측면에서 석유화학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커보이지 않지만 구조개편 과정에서 재무적인 개선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그간 하향일변도였던 신용도 추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개편은 자기부담금도 일부 발생하지만 이른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성격이라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지수 반등, 외인이 결정했다

실전 퀀트 | 2026.07.22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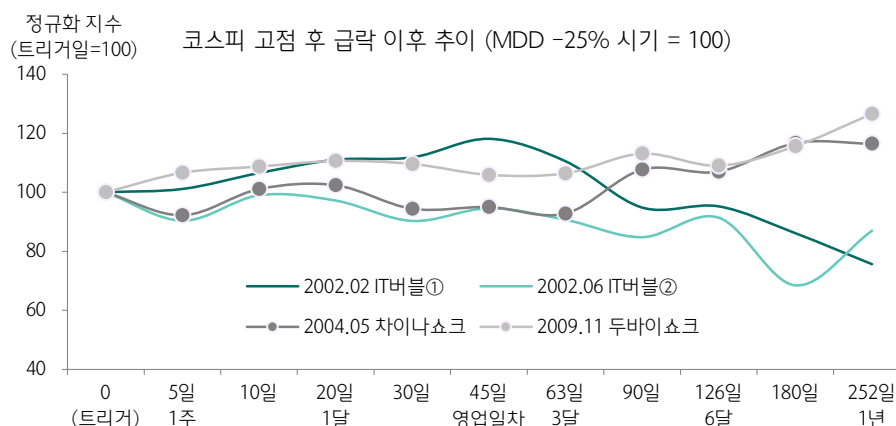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외인 매수 개인 매도 구도, 지수 반등 핵심 시그널

원/달러 환율과 외인 수급 흐름 모니터링 필수, 단일 종목 ETF 순선택액 감소는 변동성 하향 요인

- 코스피 6,800pt, 6.19일 고점(9,052pt) 대비 현재 -25% 수준
- 과거 코스피 급등(직전 1년 코스피 +20% 이상) 후 급락, MDD -25% 터치 케이스 4번 존재(IT버블 1차 및 2차, 차이나쇼크, 두바이쇼크)
- MDD -25% 터치 후 1년 경과 시점 수익률은 IT버블 1차 -24.4%, IT버블 2차 -13%, 차이나쇼크 +16.5%, 두바이쇼크 +26.6%로 케이스별 편차 존재
- 추가 하락 여부는 외인이 결정. IT버블 시기에는 추가 하락에도 외인 매도 지속되며 낙폭 확대. 반면 차이나쇼크 및 두바이쇼크 시기에는 **외인 매수(리밸런싱)-개인 매도(본전 매도) 구도가 뚜렷했고, 이후 지수 반등**으로 이어짐
- 최근 외인 매수세 지속은 현 국면을 IT버블보다 차이나-두바이쇼크 사례(지수 반등)와 가깝게 해석할 수 있는 핵심 근거
- 외인 매수가 계속 유지된다면 1년 후 +15~25% 기대수익률을 기저로 저점 매수가 가능한 셈
- 당분간 환율 안정화 체크 후 외인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딩이 적합하다는 판단
- 과거와 같은 급락 후 개인 매도 지속은 제한될 것, 1)주식으로의 머니무브 시대적 흐름(보유세 강화 가능성 등 부동산 정상화 정책), 2)반대매매 7.21일 기준 일단락(신용/대주 증가로 전환), 3)7월 중순 이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순선택액 감소로 변동성 완화 재료로 작동 가능
- 한편, 미국 빅테크(하이퍼스케일러) CAPEX와 순익 전망치 올해 내년 모두 우상향 뚜렷, S.W.의 안정적 실적 리비전과 CAPEX 증가, 반도체 수요 피크 우려는 기우

도표 1. 코스피 고점 후 급락 이후 과거 사례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Refinitiv, 하나증권

2026년 7월 21일 | Global Fixed Income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채권

AI가 쏘아올릴 재정 우려

- 연방정부 세수의 약 83%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 AI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면 주요 세입원이 빠르게 감소할 가능성
- 노동 대체 속도가 일자리 창출 속도보다 빠르다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 결국 AI가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 소득이 창출될 것인가가 핵심

AI가 가져올 변화

지금까지 AI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AI 발전이 물가와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AI가 미국 재정에 가져올 변화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단순히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정부의 세입 구조와 재정건전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세입은 대부분 노동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FY25 기준 연방정부 세수의 약 83%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서 발생한다.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급여세(Payroll Tax)가 대표적이며, 이는 미국 재정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도표 1]

개인소득세를 살펴보면, 모든 세수가 노동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IRS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임금 및 급여(60%), 자본이득(13%), 사업소득(8%) 등으로 구성된다. AI가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감소하는 것은 임금이다. 이는 노동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미국 정부의 최대 세입원인 개인소득세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급여세는 전체 연방 세수의 32%를 차지하며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세(Medicare Tax)의 재원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오직 사람이 노동을 제공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다. AI가 사람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급여세는 줄어들게 된다. AI는 사회보장세도, 메디케어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즉,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될수록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원을 잃게 되는 셈이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약 9%를 차지하며 기업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AI 도입으로 자동화가 확대되면 인건비는 감소하고 생산성은 높아져 기업 이익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법인세 수입 역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 증가만으로 감소하는 노동 관련 세수를 보완하기는 어렵다. 1) 법인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노동 관련 세금보다 작으며, 2)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조세 구조를 활용해 세금을 이전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3) 국가 간 조세 경쟁으로 인해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법인세 증가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외채권 Analyst 허성우
deanheo@hanafn.com

2026년 7월 22일 | 기업분석_Earnings P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7.21) 100,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747.95
52주 최고/최저(원)	135,600/91,900
시가총액(십억원)	925.1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9,204.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1.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4
외국인지분율(%)	13.99
주요주주 지분율(%)	
롯데지주 외 12 인	69.30
국민연금공단	7.2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4,414.1	4,599.8
영업이익(십억원)	190.2	217.0
순이익(십억원)	112.9	136.9
EPS(원)	12,538	15,179
BPS(원)	257,750	269,738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044.3	4,216.0	4,430.1	4,664.8
영업이익	157.1	109.5	173.8	203.2
세전이익	107.8	100.1	135.6	166.4
순이익	84.6	72.3	101.9	121.3
EPS	8,969	7,734	11,039	13,179
증감율	19.97	(13.77)	42.73	19.39
PER	12.44	14.82	9.06	7.59
PBR	0.49	0.48	0.40	0.39
EV/EBITDA	5.65	6.74	5.11	4.56
ROE	4.04	3.34	4.58	5.25
BPS	228,737	237,423	247,909	257,918
DPS	3,300	3,300	3,300	3,3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롯데웰푸드 (280360)**2Q26 Pre: 시장 기대 부합 전망****2Q26 Pre: 원가 부담 해외 탑라인 성장이 방어**

2분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285억원(YoY 6.0%), 450억원(YoY 31.1%)으로 추정한다. 일부 원재료 상승 및 일회성 비용 반영은 부담이나, 견조한 해외 탑라인 성장 및 내부 비용 통제 등 기인해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

① 국내(건과+빙과+베이커리) 매출은 YoY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건과 및 빙과는 '칸초 이름 찾기 2탄', 'KBO 뽀빠로' 등 신제품 중심 판매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푸드 매출은 전년 수준을 예상한다. 유지는 대두유 시세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나, 유가공 및 HMR 매출 YoY 감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해외 제과 매출액은 YoY 17% 내외 고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자흐스탄의 매출 회복과 더불어, 인도의 우호적인 날씨 영향으로 빙과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 건과도 1분기와 동일한 두 자리 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실적은 사측 가이드스 부합할 듯

2분기 손익은 당사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측은 지난 4Q25 실적 발표에서 2026년 연결 매출 성장 YoY 4~5%, OPM 4~6%를 가이드스로 제시했다. 연결 손익 가이드스 하단이 1,750억원 수준인데 상반기 손익 흐름을 보면 부합이 가능해 보인다. 다만, 연중 실적 흐름은 상고하저가 예상된다.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큰 폭 발현되었기 때문이다. 하반기는 부자재 단가 인상 등 손익 부담 요인이 일부 존재한다. 신제품 출시 및 해외 고성장을 통해 얼마나 상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밸류에이션 감안하면 주가 하방 경직 존재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8배 거래 중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다. 최근 이익 가시성 저하가 기반영 되었다고 판단한다.

2026년 07월 22일 | 산업분석_Brief

Overweight

유통

대형마트, 새벽배송보다 더 중요한 것

새벽배송 재개 되더라도 손익 영향은 제한적

정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통상부가 6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뉴스다. 그동안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이마트의 네오센터 같이 별도 물류센터에서 배송되는 것만 가능했다. 이마트 쓱닷컴 거래액(약 6조원)의 8% 정도가 새벽배송이다. 롯데마트는 새벽배송이 없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2022년 4월 중단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재개되더라도 의미있는 매출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벽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배송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웬만한 규모가 아니면 마진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역마진, MS 확대 전략이 아니라면 굳이 새벽배송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의무휴업+온라인 업체 식품 시장 침투 등으로 이마트 영업이익 1/10로 감소

사실 대형마트 입장에서 2012년부터 도입된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데미지가 훨씬 컸다. 2012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됐는데, 기존점 성장률을 5%p 가량 떨어뜨렸고, 업체별 연간 영업이익을 500억원 이상 낮춘 것으로 추산한다. 온라인화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업체들의 식품 카테고리 침투까지 가속화되면서 대형마트의 유통시장에서 비중은 2011년 9%로 정점을 찍고 2025년 7%까지 하락했다.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201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2025년 이마트 할인점 영업이익은 867억원으로 2011년 당시의 거의 1/10 수준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사업 다각화에 성공하여, 최근에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초저가 슈퍼(HD: Hard Discounter) 노브랜드 사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아무튼 현재 할인점 사업은 ROE가 1%도 안나오는 사업이 되었다(이마트 별도 기준 2025년 ROE 0.53%). 물론, 지방자치조례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이 일부 있지만, 여전히 이마트/롯데쇼핑 점포의 70% 이상이 한달에 두번 휴일 휴점을 하고 있다. 휴일 매출은 평일 대비 1.6배 더 크다.

7월 기존점 성장률 YoY 10% 이상 호조세

이마트/롯데마트 실적은 뚜렷한 회복세에 있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기존점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i) 소비심리가 양호하고, ii) 홈플러스 100여개 점포의 영업 중단 영향 반사이익도 작지 않다. 인근 점포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서, 전체 기존점 성장률이 약 4%p 제고되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기존점 매출은 7월 20일까지 YoY 15% 내외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전년도 7월 소비쿠폰 발급 전 소비공백 기저효과도 있다. 7월 마지막주는 8월 여름휴가 물품 구매로 성수기다. 7월 말로 가면서 베이스가 높아지지만 그래도 YoY 10%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2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각각 YoY 3.7%, 0.7%로 파악되고 있다. 3분기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은 상당히 큰 폭 상승할 수 있다. 홈플러스 영업 재개 가능성이 있지만, 상품 MD 측면에서 집객을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Analyst 박종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2026년 7월 22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7월 21일

SK이티닉스(475150)

BUY | TP 66,000원 | CP 55,900원

유틸리티

RPS 폐지와 태양광 PPA

RPS 제도 폐지.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제도로 전환

2027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01년에 도입된 발전차액지원 제도(FIT)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되었고 2027년부터는 정부 주도 계약시장제도로 일원화된다. 규제의 중심이 발전량에서 설비용량으로 이동하고 정부 목표에 따라 제시된 입찰 물량과 상한 가격에 따라 에너지원별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낙찰 받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기존 REC 현물 시장은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2026년 이전 준공 설비는 3년 유예기간 동안 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낮아지는 입찰 상한가격은 공급 목표 달성 우려 요인

지난 5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조기 달성을 위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재생에너지 중심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 관련 5대 과제, 10대 전략을 제시했고 5대 과제 중 두 번째에 비용 절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태양광은 2026년 150원/kWh에서 2035년 80원/kWh 이하로 낮추고 해상풍력은 330원에서 150원 이하로 경제성을 확보하는 목표다. 이미 ESS, 해상풍력 입찰 등에서 상한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며 2027년부터 시행될 계약시장제도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규제 완화 등 정책을 통한 단가 인하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면 발전사업자 수익이 훼손될 수 있다. 수익성이 낮다면 보급 목표 달성 가능성도 낮아지며 재생에너지 PPA 수요 대응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 허용 시 PPA 시장 활성화 가능

한편 언론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RPS 고정가격계약 중도 해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용 시 20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던 태양광 물량은 RE100 계약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게 된다. 기업재생에너지재단의 2025년 태양광 PPA 가격 조사 분포에 따르면 발전사와 수요 기업의 계약가격 기준 kWh당 175~185원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은 편이다. 2019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 kWh당 160원을 하회한 점에서 향후 해당 물량은 높은 가격의 계약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높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누적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9GW 수준이며 현물시장 물량은 6~7GW 가량으로 추정되는 중이다. 신규 태양광 설비가 매년 3~4GW씩 증가해왔던 흐름이 일부 둔화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규제 완화 시 RE100 PPA 시장이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태양광 설비가 공급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사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규제 변화 여부와 방향이 중요하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2026년 7월 21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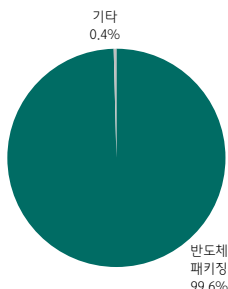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89.81 CNY
CP(7.20) 83.99 CNY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Shanghai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반도체 & 반도체 장비
홈페이지	www.jcetglobal.com
시가총액(십억CNY)	150.3
시가총액(조원)	32.7
52주최고/최저(CNY)	113.87/33.82
주요주주 지분율(%)	
PANSHI RUNQI (SZ) INFO MGMT	22.53
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4.19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7.3) 55.6 126.0
상대	(0.1) 63.3 119.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5,962	38,871	43,952	50,597
영업이익	1,797	2,056	2,629	3,594
순이익	1,610	1,565	2,256	3,071
EPS(CNY)	0.9	0.9	1.3	1.8
EPS(YoY, %)	9.8	(3.3)	46.3	37.9
ROE(%)	6.0	5.6	7.4	9.3
PER(배)	45.4	42.3	66.0	47.9
PBR(배)	2.6	2.3	4.9	4.5
배당률(%)	0.3	0.4	0.2	0.3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JCET(600584.CH)

고성장 구간 진입한 중국 첨단 패키징 1인자

중국/글로벌 AI 후공정 수요 확대의 수혜주

글로벌 3위이자 중국 최대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업체(OSAT)인 JCET은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수요 증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JCET은 2025년 2.5D/3D 첨단 패키징 기술과 생산능력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2.5D 제품 생산라인 램프업을 통해 2026년부터 점진적인 실적 기여가 예상된다. 또한, 상하이 SanDisk 메모리 패키징 공장 인수와 한국 생산공장의 제품 Mix 최적화(모바일 SiP에서 HPC용 FCBGA로 생산능력 재배치)가 AI 사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컴퓨팅, 메모리, 전력반도체를 포함한 JCET의 AI 관련 매출은 2025년 YoY 43% 고성장했으며, 매출 비중은 2025년 21%에서 2028년 두 배 수준으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AI 사업의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NPO를 포함한 차세대 광학 솔루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JCET은 자체 개발 첨단 패키징 기술인 XDFOI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리콘 포토닉스 광엔진을 개발해 2026년 1월 고객사 인증을 완료했고, 향후 NPO·CPO용 광전자 패키징 매출이 신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2026년부터 순이익 30~40%대 고성장기 진입 전망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JCET의 제품 Mix 개선을 바탕으로 2Q26에도 가파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 JCET의 잠정실적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7.7억~9.5억위안으로 YoY +64.5%~101.7% 증가할 전망이며, 가이던스 중간값 기준으로 2Q26 순이익(5.7억위안)은 YoY 113% 증가해 2H25/1Q26 성장률(YoY +11%/+43%) 대비 크게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영진은 2026년 상반기 견조한 이익 성장의 이유로 1)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른 오더 확대와 가동률 개선, 2)지속적인 제품 Mix 개선, 3)비용 통제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언급했고, 중국과 글로벌 고객사의 강한 수요를 바탕으로 JCET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2025년 역성장에서 2026~28년 매년 YoY 30~40%의 고신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와 글로벌 수요 대응 위해 설비투자 강화

JCET은 2025년 80억위안 투자에 이어 올해 약 100억위안(한화 약 2.2조원)의 투자를 계획 중이다. 투자액의 대부분은 AI 가속기, 메모리를 포함한 중국 내 AI 공급망 구축 수요 충족과 글로벌 고객사의 AI 관련 수요 대응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은 Capex 지출은 추가적인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높은 가동률과 원재료비 상승분의 제품 가격 전가 여지 등이 마진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JCET은 2026년 상반기 잠정실적 호조와 향후 2~3년의 높은 실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최근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과 첨단 패키징 기술력, 글로벌 1선 팹리스 및 IDM 고객에 대한 높은 노출도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과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

2026년 7월 21일 | Global Equity

CATL(3750.HK)

BESS 통합 시스템 확대가 이끄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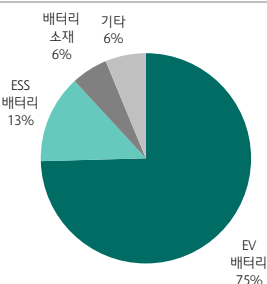
중국

TP(컨센서스) 810.18 HKD
CP(7.20) 628.00 HKD

Key Data

국가	중국
상장거래소	홍콩 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catl.com
시가총액(십억HKD)	2,088.8
시가총액(조원)	392.5
52주최고/최저(HKD)	794.5/391.608
주요주주 지분율(%)	
YUQUN ZENG	22.19
HongKong Exchanges and Clearing	12.01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2.7) 29.0 47.9
상대	(17.8) 34.0 47.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CNY)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62,013	423,702	611,891	742,275
영업이익	55,932	73,608	111,386	140,028
순이익	50,745	72,201	96,071	117,142
EPS(CNY)	11.6	16.1	21.2	25.9
EPS(YoY, %)	(1.8)	39.4	31.7	21.7
ROE(%)	22.8	24.7	25.9	26.5
PER(배)	23.0	22.8	25.5	21.0
PBR(배)	4.7	5.0	6.2	5.3
배당률(%)	2.2	2.2	1.8	2.2

자료: Bloomberg, 아나중권



Analyst 송예지 yeajisong@hanafn.com

고부가가치 BESS 통합 시스템 업체로 전환

CATL은 현재 단순 셀 공급업체에서 BESS 통합 시스템 업체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가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의 핵심 수요처로 부상하면서, 1) BESS 통합 시스템 프로젝트 규모가 배터리 셀 프로젝트 대비 확대되었고, 2) BESS 통합 시스템 사업의 수익성이 배터리 셀 공급 대비 높기 때문이다. BESS 통합 시스템이란 배터리 셀뿐 아니라 PCS(Power Conversion System),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원격 모니터링(Telemetry), 제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합한 솔루션이다. 현재 CATL은 글로벌 BESS 배터리 셀 시장에서는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BESS 통합 시스템 시장에서는 점유율 6%로 5위에 그쳤다. 현재 BYD, Tesla, 양광전력 등이 상위권에 진입해 있으며, 양광전력은 PCS와 EMS를 기반으로 높은 시스템 가동률과 양복효율(RTE)을 구현하고 있다.

BESS 통합 시스템 출하량 확대, GPM 개선 예상

2025년 기준, CATL의 BESS 통합 시스템 출하량은 전체 ESS 출하량의 약 1/3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터리 셀은 BESS 구축 비용의 약 30~50%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CATL은 배터리 셀 원가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PCS와 EMS는 외부 파트너와 협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ESS 마진율은 양광전력(36%) 대비 낮은 27%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CATL의 BESS 통합 시스템 출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ESS GPM은 중장기적으로 30%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급 영향으로 최근 주가 조정,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 상태

CATL은 BESS 통합 시스템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4월 41억위안을 투자해 중형전기(002364.CH) 지분 49%를 인수하며 HVDC(고압직류송전) 기술을 확보했고, 5월에는 30억위안 규모의 ESS 시험센터를 개소해 시스템 검증 역량을 강화했다. 향후 BESS 통합 시스템 매출 확대와 생산능력 제약이 완화될 경우, ESS 시장 역시 EV 배터리 시장과 유사하게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CATL은 EV 배터리 시장에서 확보한 약 40% 수준의 글로벌 점유율을 장기적으로 ESS 시장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관세, IRA 세액공제 제한, FEOC 규제 강화 등은 미국 ESS 시장 확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BESS 통합 시스템 사업 확대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이 중장기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주가는 CXMT 상장을 앞둔 투자 심리 위축과 유동성 분산에 따른 수급 영향으로 조정을 받았다. 현재 CATL A주는 12MF P/E 18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글로벌 Peer 평균(29배) 대비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Issue

2026년 7월 21일 | 글로벌 리서치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같은 문제, 다른 해결책(뉴욕과 PJM)

중간선거 중요 안건이 될 데이터센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50MW급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건설을 최대 1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데이터센터 크기 중간값이 175MW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을 제한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뉴욕주의 데이터센터는 약 134개로 버지니아주(639개)와 텍사스주(506개) 대비 현저히 적은 편이며 현재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도 텍사스와 버지니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미국 전체를 기준으로 할 때 이번 뉴욕주 행정명령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11월 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경합지에 데이터센터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중요한 안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를 '미래 일자리의 원동력'으로 표현하며 호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PJM 2028/29 용량경매는 \$325/MW-day (YoY -3%)

같은 날 발표된 PJM의 2028/29 ('28년 6월~'29년 5월) 용량경매(BRA) 가격은 \$325.00/MW-day (YoY -3%)였다. FERC가 이미 4월 28일에 이번 2028/29 용량경매에 대한 상한선(\$325)과 하한선(\$175)을 발표했으며 상하한선 제도가 도입되었던 2026/27 경매 이후 지속적으로 상한가에 낙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가격은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였다. 다만 여전히 절대적 가격이 높은 수준이며 상한이 없는 시뮬레이션상 가격은 \$554.72/MW-day로 실제 낙찰가 대비 약 70% 높다. 게다가 예비력 부족 규모가 6.8GW로 지난 경매 6.5GW 대비 확대되며 2년 연속 예비율 20% 도달에 실패했다. 신규 공급은 증설을 포함해 525MW에 그친 반면 예측 수요는 2GW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규제적 예방(뉴욕) vs 사후적 시장 메커니즘(PJM)

데이터센터발 전력 요금 상승 우려라는 같은 문제에 대해 뉴욕주는 신규 허가를 멈추고 규제부터 만드는 방식을 택한 반면 PJM은 Connect and Manage 방식(일단 연결하되 위기 시 신규 데이터센터부터 차단)을 채택하며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같은 다른 주에서는 데이터센터 세제혜택을 축소했다. 메인주에서도 뉴욕과 비슷한 모라토리엄을 추진했던 바 있으나 최종 서명 단계에서 거부된 점, 데이터센터 최대 유치 주에서 모라토리엄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뉴욕과 같이 극단적인 전면 금지가 표준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인 미국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1) 무조건적 유치가 아닌 조건부 유치, 2) 조건의 핵심은 자체 인프라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7/20	255,000	259,000	1.5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LG에너지솔루션 (373220.KS)	7/20	334,000	317,000	-5.09%	- ESS·테슬라향 원형전지 출하 증가로 2분기 3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전환 기대 - GM 재고 소진에 따른 EV 배터리 가동 재개와 AI 데이터센터 기반 ESS 수요 성장 기대
KB금융 (105560.KS)	7/20	181,100	174,000	-3.92%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7/20	943,000	899,000	-4.67%	- 약 39.7조원 규모의 지상방산 수주잔고와 연내 수주 파이프라인 구체화 기대 7월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시제계약자 선정 기대감 부각
S-Oil (010950.KS)	7/20	144,900	141,600	-2.28%	8월 OSP 마이너스 전환과 투자 종료로 이익·배당 매력 확대 기대 - 유가 약세에 따른 사민 프로젝트 수익성 개선과 순차입금 축소 기대
대한항공 (003490.KS)	7/20	26,500	25,350	-4.34%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오리온 (271560.KS)	7/20	128,400	128,000	-0.31%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한화생명 (088350.KS)	7/20	4,540	4,340	-4.41%	-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업계 최상위권 CSM을 바탕으로 중장기 이익 창출력 강화 기대 - 투자손익 회복과 자본 부담 완화로 실적 개선 및 배당 확대 가능성 부각
금호석유화학 (011780.KS)	7/20	123,500	118,000	-4.45%	- 합성고무 판가 상승과 페놀사업 흑자전환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스 상회 전망 - NBL-SBR/BR-MDI 등 주요 제품의 업황 회복과 저평가 매력 부각
에스티팜 (237690.KQ)	7/20	124,300	114,000	-8.29%	- 글로벌 RNA 치료제 시장 성장과 올리고핵산 상업화 물량 증가로 수주·매출 확대 전망 - 제2올리고당 가동률 상승과 고마진 상업용 생산 비중 확대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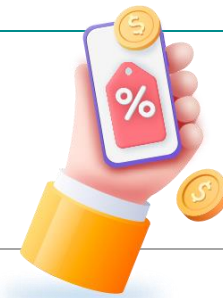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54%	-2.63%p	+64.97%	+8.2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16,300	-4.20%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금호석유화학 (011780.KS)	7/20	123,500	118,000	-4.45%	- 합성고무 판가 상승과 폐놀사업 흑자전환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NBL-SBR/BR-MDI 등 주요 제품의 업황 회복과 저평가 매력 부각
삼성전자 (005930.KS)	7/13	285,000	259,000	-9.12%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4,000	-5.64%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효성중공업 (298040.KS)	7/13	2,924,000	2,578,000	-11.83%	- 미국향 초고압변압기-리액터 수주 확대에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 부각 2분기 미국향 고마진 차단기 물량 매출 인식과 관세 환급 가능성으로 수익성 회복 기대
삼성증권 (016360.KS)	7/6	119,100	103,100	-13.43%	-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중심 실적 모멘텀 지속 기대 - 높은 배당성향과 주주환원 기조에 더해 리테일 고객자산 확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117,000	-0.18%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한국콜마 (161890.KS)	7/1	99,500	101,700	2.21%	- 인디 브랜드의 글로벌 수출 확대, 선케어·스킨케어 주문 증가로 ODM 본업 성장성 강화 - 국내 법인 고성장과 고마진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 기대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8.74%	+2.25%p	+38.48%	-18.2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665	-3.3%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520	-17.4%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1,165	39.3%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105,920	-0.9%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750	-2.3%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0,805	-2.3%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225	-1.1%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2,540	-2.8%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2.09	-2.0%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5.95	-2.5%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1.79	-0.1%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4.53	11.5%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58.83	64.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3.06	-34.3%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77.08	-0.3%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50.94	-0.7%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중국 7월 대출우대금리 (3.0%, 이전치 3.0%) - 미국 6월 선행지수 (-0.2%, 이전치 0.1%)	- 한국 7월 수입 20일 (20.0%, 이전치 23.2%) - 한국 7월 수출 20일 (52.3%, 이전치 60.4%) - 유로존 7월 ZEW 경기심리지수 (23.4, 이전치 9.5)	한국 6월 PPI (E --, 이전치 8.5%)	- 한국 2분기 GDP A (E --, 이전치 3.8%) - 유로존 7월 단기수신금리 (E --, 이전치 2.25%) - 유로존 7월 소비자가지수 P (E --, 이전치 -17.7)	- 일본 6월 CPI (E --, 이전치 1.5%) - 일본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4.8) - 일본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2.2) - 미국 7월 S&P 제조업 PMI P (E --, 이전치 53.9) - 미국 7월 S&P 서비스업 PMI P (E --, 이전치 51.2) - 미국 6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7.3%)	
7.26	7.27	7.28	7.29	7.30	7.31	8.1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4.5%)	- 한국 7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6.6) - 미국 6월 도매 채고 (E --, 이전치 0.1%) - 미국 5월 FHFA 주택가격지수 (E --, 이전치 -0.1%) -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91.2)	일본 6월 공작기계 수주 (E --, 이전치 52.8%)	- 미국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75%) - 유로존 2분기 GDP (E --, 이전치 -0.2%) - 유로존 6월 실업률 (E --, 이전치 6.2%) - 영국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6월 개인소득 (E --, 이전치 0.7%) - 미국 6월 개인소비지수 (E --, 이전치 0.7%) - 미국 6월 PCE (E --, 이전치 4.1%)	- 한국 6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0.9%) - 일본 7월 기준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5%) - 일본 6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1.9%) - 중국 6월 제조업PMI (E --, 이전치 50.3) - 중국 6월 서비스업PMI (E --, 이전치 50.2) - 유로존 7월 CPI (E --, 이전치 2.8%) - 미국 7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 이전치 49.5)	- 한국 7월 수출 (E --, 이전치 70.7%) - 한국 7월 수입 (E --, 이전치 30.1%)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